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임 행진곡' 울려 퍼지다

달라진 시위문화가 만들어 낸 탄핵

하나된 MZ세대와 기성세대
"탄핵해" "찬성해" 간절한 외침
민중가요와 K팝 어우러지고
선결제 열풍 속 강한 연대감
아이들 위한 '키즈버스'도 마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국에서 '국민들이 이겼다'는 환호가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탄핵 가결에 열싸안고 탄핵안 통과를 당연하다고 기뻐했다.

◇국회 앞 축제 분위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탄핵 집회는 탄핵가결 이후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시민들은 탄핵 가결에 환호하며 기뻐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 10일이 지난 이날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지만 집회는 더욱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선결제를 통해 커피와 간식 거리를 나섰고, "고마워요. 오늘도 힘내요"라며 직접 농사 지은 콩과 키위 등 과일을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디지털 가게를 운영하는 안모(여·29)씨 쌍둥이 자매는 '윤석열 OUT'이 적힌 직접 제작한 외판을 1000원에 판매했다. 재료 가격만 받고 봉사를 겸해 나왔다. 안씨 자매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니 해외 바이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계엄이 선포된 불안정한 국가'라는 이유로 계약을 꺼리기도 하더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돕기는 커녕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을 더 힘들고 부끄럽게 만든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KBS본관 앞 여의도공원에서 '레이브 파티'가 열렸다. 레이브 파티는 성별·인종·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EDM 음악을 함께 즐기는 대규모 댄스 파티다. 이곳에 모인 MZ세대는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깃발을 흔들며 DJ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강나경(여·29)씨는 "다양한 노래가 들리기도 하고,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집회 사회자들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이 사태를 초래한 국회의원과 대비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 보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 국회의사당 앞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 텃밭인 대구 시내 중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구 탄핵집회에서 시민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직접 만들어진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시민들은 울컥한 목소리로 행진곡을 목 놓여 불렀고 한 손에는 '윤석열 탄핵'이 써있는 손팻말을 높이 치켜들었다.

대구 시민들 뿐 아니라 경북지역 곳곳에서 탄핵 집회를 찾았다. 구미에서 온 김영대(52)씨는 팔 김에서(12)양의 손을 잡고 대구를 찾았다. 김씨는 "민주주의를 알려주고 싶어 시위에 나왔다. 주말이라고 노는 것보다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현준(49)씨는 "대구 경북에서 사는 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대구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수만명이 한뜻으로 모인 모습을 보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광주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장영옥(여·61), 노성현(65)씨 부부는 이날 손을 잡고 시위에 참여했다. 노씨는 장씨의 권유에 이날 처음으로 시위에 나왔다고 했다.

장씨는 "광주만 생각하면 눈물나고 감사하다. 혼자서 맞서 싸웠던 1980년 그날 광주는 어떤 마음이 있었지 생각하면 대구 시민으로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로 나왔다"면서 "이제는 대구도 부패한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라의 존립이 달려있다"고 울먹였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탄핵안이 가결 되자 대구 시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보수의 텃밭이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광주 금남로서도 환호= "국민이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 광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광주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일빌딩 앞 분부대부터 시작된 인파는 금남로공원 앞까지 4차로를 빈틈없이 메우고 있었다. 금남로 내에 앉아 있을 공간이 부족해 인근 건물 계단참에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들어앉았다.

시민들은 국회 표결이 시작되기 2시간여 전인 오후 2시께부터 금남로로 몰려들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구호를 따라 외쳤다. 저마다 '탄핵 촉구' 손팻말을 들고 금남로 차도 위로 뺨뺨

이 둘러앉은 이들은 국회 표결이 끝날 때까지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시민들은 환호하며 "탄핵해", "찬성해", "투표해" 등 구호를 외치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204표"를 말하는 순간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일제히 양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연호하고, 일제히 '파도타기'를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송정1동 주민 오성중(62)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좀 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이 하나로 뭉쳤다. 윤석열은 시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구=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서울=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낸 원동력

촛불서 응원봉...민중가요서 K팝으로

진화한 촛불집회 역사

2002년 효순·미선양 추모 발단
굽직한 이슈 때마다 촛불 등장
아이들 문화 젊은층 참여 늘며
K팝 폐창 희망의 메시지 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와 민주주의를 멈춰세운 무능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일부 정치인이 촛불은 빨리 꺼진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든 촛불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 됐다.

2024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탄핵 집회는 이제 저항의 상징에서 아이들 팬덤들을 통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민중가요 '바위처럼'과 아이돌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를 함께 부르고 소녀시대의 '다만세'(다시 만드는 세상)와 '아파트 아파트'에 맞춰 다양한 모양의 응원봉을 흔들며 평화를 애가하는 축제의 광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밀레니얼의 투쟁에 따라 민중가요 대신 'K팝'이 화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힘 이탈표 결정적...최소 12표 탄핵 찬성한 듯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가결 과정에는 '국민의힘 이탈표 효과'가 결정적이었다. 특히 표결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이 7명으로, 1명이 부족해 야권이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최소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12표가 나왔고, 기권 3표·무효 8표가 나와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불어민주당 광주시역 기초·광역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편지를 써 표결 참여와 찬성할 것으로 권유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총동원돼 '채워지지 않은 1표'를 찾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전체 300명의 의원 중 204명이 찬성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돼 투표가 성립되고, 여당에서 찬성이 8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보다는 마지막 1명의 '찬성 선언'이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표결 막판까지 추가 찬성 의사를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타나지 않아 야권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탈표 부족으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하면서 "친윤석열" 계와 충돌했다.

이에 친한계 진중우, 한지아 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

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재욱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국회 로텐더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표결 참석과 찬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전과 오후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생겨났고, 추후에도 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라면서 "계엄 관련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무작정 탄핵에 반대하는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거구에서 1000표가량의 근소한 득표수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도 있는 만큼,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적 입장에 탄핵안 찬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탄핵 환영"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도 일제히 환영 담화문을 내고, 민생 안정 대책 마련 등에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면서 "살을 에는 추위에도 씀 없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한 뒤 "이제 도지사로서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 3일 내려진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각종 대내외 경제지표도 검증을 수없이 추락했다"며 "이제 가까스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12월 3일 이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어려움을 모두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이겨낸다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 더 탄탄한 선진경제 국가'로서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게 되리라 믿는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모든 대책을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내란세력에 대한 '국회의 첫 심판'이자, 인 손 호호 불며 응원봉을 든 '국민의 승리'라면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